

지역 소식통

365일 안심도시'... 정읍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총력

정읍시가 '사람 중심 안전 도시'를 목표로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선제적인 재난 대응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65일 재해 없는 안전 도시 실현을 위해 시는 행정과 민간이 함께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며,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가운데, 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우선, 태풍·호우·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준비는 물론,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 훈련과 민간 전문가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공사 현장, 노후 시설 등 재난 취약지를 중점 관리하며, 집중호우 전철 점검 기간을 운영해 사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현충일 순국선열
기리며 호국보훈 추념식

정읍시가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을 거행, 호국보훈수당 인상과 보훈단체 지원 등 실질적인 예우 정책을 이어간다. 시는 오는 6일 오전 9시 50분 충무공원 충훈탑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할 예정이다. △국민목련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된다.

이학수 시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자리인 만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각 가정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추념식을 계기로 태극기 달기 운동, 홈페이지·SNS·이장 회보 등을 활용해 현충일의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폭염 종합대책’ 본격 시행

정읍시,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총력 체계 가동... 무더위쉼터 410개소 운영

정읍시가 지난 여름 74일간의 폭염 특보발효 경험을 교훈 삼아 체계적인 대응과 현장 중심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5년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읍의 최고기온은 37.5°C까지 치솟았고, 온열질환자는 15명에 달했다. 가축 피해도 33농가 4만여 수로 집계되며 기후위기의 일상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폭염

대응에 나섰다.

시는 폭염 대응 전담 T/F팀을 구성해 상황을 총괄하고 특보 발효 시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을 유도한다. 특보 시 주요 공공장소에는 얼음생수를 비치하고 스프링클러 10개소를 설치해 더위를 피할 공간도 마련했다.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위한 대책도 강화됐다. 4,000여명의 재난도우미가 안부전화와 방문 관리를 통해 아들을 밀착 보호하고, 무더위쉼터 안내와 응급상황 대응

까지 책임진다.

쉼터 운영도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마을화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총 410곳의 실내 쉼터를 개방하고, 이 가운데 210개소에 대해 냉방기기 점검을 마쳤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갈증 해소와 체온 조절을 돕기 위해 쉼터마다 생수를 비치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과 농촌 등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시는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 2시부터 5시) 운영, 작업 중지 권고와 안전 교육을 통해 폭염 속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62회 도민체전 D-100 카운트다운

2025년 전북자치도민 양대체전 카운터기 제막식... 심덕섭 고창군수 등 참석

고창군이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도민체육대회'의 개막 10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도민체전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4일 고창군과 고창군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군청 앞 말구슬나무 아래에서 2025년 전북자치도민 양대체전 카운터기 제막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오철환 고창군 체육회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민 양대체전 조직위 체육회·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민 양대체전 카운터기는 고창군청 입구 말구슬나무 앞에 설치, 개막일까지 남은 일수를 군민과 공유하며 체전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도민체육대회'



는 9월12~14일,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는 9월26~28일까지 고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약 2천여 명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참여해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며 도민 화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문체와 전북의 힘" "행복도시 고창에서 감동 가득 희망체전"으로 슬로건을 정하고,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통해 도민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새 정부, 국민 뜻 만드는 일 중요” 강조

심덕섭 고창군수가 4일 새정부 출범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통합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뜻을 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전날(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곧바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창군민을 대신해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 투표를 통해 보여준 국민의 뜻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군수는 "모내기와 복분자·수박수확 등으로 바쁜 영농철에도 88.9%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소중한 주권행사를 해준 고창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고창군민들의 한 표 한 표는 새 정부가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군수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가예산 확보, 공무사업 대응,

중앙부처 인사 동향 등에도 새로운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민간의 준비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고창군 동계공약으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단계적 연결 추진 △노을대교(고창-부안) 조기착공 및 연결도로 확장 추진 △국재기술사업 경기장 조성 지원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연장추진(고창IC-고창SH법성IC) 등을 약속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상에 대표, 한식대가 인증 쾌거

부안 곰소왕젓갈... 장류발효대전 발효응용소스 부문 대상 수상

부안군은 최근 대한민국한식포럼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한식대가·명장 선정식에서 곰소왕젓갈의 이상에 대표가 한식대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한식대가·명장 선정은 한식문화의 세계화와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 발굴·인증하는 사업이다.

특히 한식대가는 20년 이상 경력을 바탕으로 한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이들 중 음식 분야별 전문성과 공헌도, 활동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이상에 대표는 부안을 대표하는 전통 발효식품인 젓갈을 기반으로 한 곰소왕젓갈을 운영하며 지역의 발효음식 자원 보존과 계승에 힘써 온 인물이다.

그간의 활약도 눈부시다. 2024 대한민국 치유식품대전 대상 수상, 2025 K-푸드 발효문화대전 출품에 이어 지난 5월 25일 양주시 서정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에서 장류발효응용소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부안 발효푸



드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여왔다.

이상에 대표는 "부안을 대표하는 젓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한식대가라는 큰 영예를 안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의회,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7월 추경에 집행부와 협력 '민생지원금' 반영 추진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군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반영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만큼, 부안군의회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의회는 오는 7월 편성될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군의회는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생정책 실현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고, 흔들렸던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승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세계환경의 날 플로깅 실시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4일 정읍 천변 일대에서 교육지원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로깅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